

전남자치경찰, 민관 협력시책 전국 확산

‘내비 통한 교통안전’ 첫 추진
사고 예방·빠른 길안내 효과
“도민안전 제고, 정책 다양화”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내비게이션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 시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내비게이션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 시책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교통정보를 내비게이션 업체에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교통서비스 이용 편의를 증

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내비게이션 업체는 전국 도로를 연 1~2회 가량 전수조사해 직접 교통정보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수시로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교통정보가 내비게이션에 즉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전남경찰청은 이 같은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전남 21개 경찰서 교통정보 중 제한속도·일방통행 등 중요 정보만 취합해 내비게이션 업체 등에 제공해 교통서비스 이용 편의를 증진했다. 경찰청은 이 시책의 성과가 크다고

보고 우수사례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티맵(T MAP) 등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하게 된다. 반영되는 교통정보는 제한속도, 일방통행, 유턴, 중앙선 절선(좌회전 허용) 등 교통안전에 꼭 필요한 정보들이며, 교통정보는 내비게이션에 거의 실시간 수준으로 업데이트 된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정확한 교통안전 정보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교통사고 예

방은 물론 빠른 길 안내로 목적지까지 도착시간도 단축하게 된다. 또 향후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2일 “이번 사례는 자치경찰과 민간기업이 서로 협력해 교통안전과 편의를 크게 향상시킨 우수 사례로 전남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돼 의미가 더욱 크다”며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도민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순조로운 첫 발

첫날 광주 3명·전남 10명
과잉경쟁 우려 내역 비공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순조롭게 첫 발을 뒀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1일부터 이날까지 각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기부 방법 문의와 실제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에는 현재 3명의 기부자가 나왔다. 첫 기부자가 나온 동구에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여러 문의가 접수됐고 실제 이날 1명이 온라인으로 기부금을 입금했다.

답례품 5개 품목을 선정한 서구에는 이날 1명이 실제 기부에 동참, 돼지갈비를 답례품으로 전달받았다.

남구에도 총 2명이 기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중 1명은 지역발전을 위해 기부했으나 답례품은 고르지 않았

다. 현재 남구 답례품은 진다래북 1품목으로, 오는 20일 선정심사를 거쳐 공예품, 농축산물 등 20~30여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북구는 이날 기부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북구 출신의 월드스타 방탄소년단 제이홉이 고향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기부 의사를 밝혔다. 광산구는 최근 담당 업무 부서 변경과 다른 자치구에 비해 관련 조례 개정이 늦어져 이번달말에 최종 답례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남도에는 10명이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호 기부자는 해남 출신인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전남도뿐 고향인 해남군에도 기부했다. 또 영광군에 24명, 함평 5명, 화순 3명 등 각 지자체에도 실제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전남도는 정확한 기부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행안부에서 지자체간 과잉경쟁을 막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내역을 비공개하기로 했고 전남도에서도 이 내용을 준수하기로 결정했다. /임채민 기자

고향사랑기부금 내역은 내년 2월 전 제공된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의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부금액의 30% 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모든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으로 운용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및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답례품은 지역 농수산물과 문화예술 관광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시스템에 기부를 신청한 지역민에게는 별도의 가상 계좌번호가 지급되고, 기부자는 금액 입금과 함께 받고 싶은 답례품을 선택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전남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많은 국민의 적극적인 기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채민 기자



민족민주열사묘역 참배 송산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2일 오후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설 축산물 위생 특별점검

광주시는 2일 “설을 맞아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11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 설 선물과 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시에 등록된 축산물 제조·유통·판매 업소 3,500여곳 중 대형상점·전통시장 내 업소,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처분 이력업소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광주시는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보관·운반 시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및 영업장 위생취급 여부 ▲축산물이력제 표시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과 동시에 축산물을 수거해 변질 여부와 성분검사 등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축산

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재점검 등을 실시한다.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 및 식품안전나라시스템 등록 등을 통해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남택송 시 생령농업과장은 “지난 한 해 642곳을 점검하고 492건의 축산물을 수거해 검사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며 “올해도 설을 앞두고 축산물 위생 특별점검을 실시해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함께 육아’ 캠페인

혼자하면 '힘든' 육아
함께하면 '든든' 육아

본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전남지회가 함께합니다

7월 11일 인구의 날 /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완도수목원 아열대 생물 ‘한눈에’

다육식물 등 141종 책자 발간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완도수목원이 아열대 온실을 소개하고, 온실 내 생육하는 전시식물자원을 담은 ‘완도수목원의 아열대온실’ 책자를 발간했다.

1993년 조성된 완도수목원 아열대 온실은 이국적 정취가 물씬 풍기는 아열대 식물과 선인장, 다육식물 등 592종을 관람객들에게 전시·선보이는 공간이다.

이번 책자에는 아열대 온실에 전시된 대표식물자원 141종의 꽃과 전경을 보여주는 화상자료와 원산지 정보를 수록했다.

앞서 완도수목원은 난대수에 서식하는 자생생물자원과 수목원 내 전시 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일환으로 생물자원을 조사해 책으로 발간해왔다.

책자에는 나비 48종, 잠자리 16종, 나방 613종, 버섯 194종, 야생동물 113종 등과 함께 초본·목본 각 100종

의 자생식물, 노린재 157종, 딱정벌레 239종, 상록활엽수 85종 등 수목원에 서식하는 자원을 조사해 담았다.

책자는 도내 시·군 등 유관 기관에 배부하고, 자료는 완도수목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도록 게시할 예정이다.

오찬진 완도수목원장은 2일 “책자가 아열대식물, 다육식물 등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물자원 보존을 위해 다양한 식물자원의 수집·전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민 기자

전남도, 귀어·귀촌인 어촌정착 지원

저리용자...25일까지 접수

전남도는 2일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어 창업·주택구입 용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창업과 주택 분야로 각각 연리 2% 저리용자를 적용,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창업은 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가공·유통업, 어촌관광·해양수산레저 등 최대 3억원이며, 주택 구입과 신축·리모델링은 최대 7,500만원이다.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하 귀어·귀촌인으로 1년 이상 어촌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어촌으로 이주 후 5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최근 5년간 귀어 관련 교육을 5일(35시간) 이상 이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사람은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갖춰 시·군 귀어·귀촌 업무 관련 부서로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3월 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2024년 12월까지 사업

완료 후 수협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올해부터는 귀어·귀촌인(희망자)의 사업 수혜 편의를 위해 신청 횟수를 1회에서 4회로 늘려 분기별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올해는 귀어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과 귀어인을 환영하는 어촌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며 “창업·주택 구입 자금 지원과 함께 어촌살이 기회 제공, 수산업경영 기술 교육도 함께 추진해 수산업 중심의 젊고 활기찬 어촌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전남 귀어인은 403명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1위(33.1%)를 차지했다. /임채민 기자